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5월 1일 개막

다양한 색상 · 형태 한지 나비 만나다

개막식 사회자 공승연 · 이희준 배우 선정...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서 야외 레드카펫 · 공연 등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 7월 20일까지 '호접몽, 나비가 된 꿈' 기획전시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오는 5월 1일 19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개막식 배우와 이희준 배우의 개막식 사회자로 막을 연다.



공승연



이희준

제 개막식 사회 진행 등 전주국제영화제와 인연이 깊다.

이어 올해 개막 사회자로 선정된 이희준 배우는 영화 <1987>(2017), <미쓰백>(2018), <남산의 부장들>(2020), <황야>(2024)를 비롯해 드라마 <마우스>(2021), <지배종>(2024), 연극 <그때도 오늘>(2022, 2024)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캐릭터의 디테일을 살리는 섬세한 연기로 자신만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는 배우다. 특히 최근 화제를 모은 <살인자안감>(2024)에서 65세의 노인, '송춘' 역을 맡아 파

격적인 연기 변신으로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희준 배우 역시 전주국제영화제와 인연이 깊다. 첫 연출작이자 자전적 이야기를 투영한 <병훈의 하루>(2018)가 45: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단편경쟁'의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 진출할 스토리텔링과 진정성 있는 연출로 19회 전주국제영화제 당시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한 바 있다.

특히,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은 국내의 수많은 영화인들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본행사 한 시간 전인 18시 30분에는 유지태, 진구, 이유미, 변우석 등을 비롯한 국내외 초청 게스트들이 야외 레드카펫을 통해 시민과 만나다. 이후 우범기 조지위원장의 개막 선언을 시작으로 피아니스트 오은하&타악연희원 아쿠의 개막 축하 콜라보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개막식은 미야케 쇼 감독의 <새벽의 모든>을 상영하며 마무리된다.

한편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전주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43개국 232편의 영화를 상영하며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7월 20일까지 전주천년한지관에서 '호접몽(胡蝶夢), 나비가 된 꿈' 기획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나비'를 매개로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상상과 예술 의지를 제공하기 위해 색 한지로 만든 다양한 형태의 나비와 대형 액자 등의 조형물을 배치, 관객과 함께 완성하는 참여형 전시로 기획됐다.

특히 전시장을 가득 채운 3,000여 마리 나비에는 한지의 독특한 색깔과 조화로움이 담겨 있어 한지의 매력은 물론, MZ세대 감성에 어울리는 조형물과 포토존을 통해 한 쪽의 그림 같은 장면을 사진으로 담아갈 수 있다.

전시를 설치한 한아름 한지조형작가는 "실재와 환영, 본질과 이미지 경계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며 나와 나비가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을 작품으로 표현했다"고 연출 의도를 전했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전시는 한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획된 전주천년한지관의 두 번째 작품전"이라며 "다양한 색상의 한지 나비로 연출된 전시 관람을 통해 가족, 친구, 연인과 따뜻한 봄날의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편, 이번 전시 관람객에게는 기념품으로 전시 이미지가 담긴 한지엽서가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천년한지관 누리집(jnhm.kr)을 참고하거나 전통한지팀(063-281-1638)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영화 · 공연 함께 즐기는 '전주씨네투어X산책'

전주국제영화제, 26일부터 관광객 · 시민 위해 무료 영화 상영 · 공연 선사

영화제 전에 영화, 공연과 함께 전주시 곳곳의 아름다운 야경까지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오는 26일부터 '전주씨네투어X산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4회 전주국제영화제부터 전주시에 함께 운영한 '전주씨네투어X산책'은 전주를 찾는 관광객과 전주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영화 상영과 공연을 선사하는 사업이다. 전

주객사, 전주한옥마을 등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에서 벗어나 전주시 곳곳에서 편하고 자유롭게 영화와 공연을 즐길 수 있어 영화제 개막 전 전주국제영화제만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벤트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전주씨네투어X산책'은 영화와 공연을 모두 즐길 수 있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전주씨네투어X산책'에서는 우정, 성장, 가족, 감동 등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상영되기에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다. 또

한 영화 상영 전에는 고나, 느린날, 탭댄싱어 박형주, 페이지, 주간 김은총, 윤별&향기, 행로난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있어 산책, 영화, 공연 등 일석삼조로 즐길 수 있다.

'전주씨네투어X산책'은 전주대학교 대운동장, 전주월드컵경기장광장, 염순근린공원, 세병공원, 문화공관장 작당(남부시장), 덕진공원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혹은 전주씨네투어의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엘레먼트 컴퍼니의 최장순 대표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전북지식살롱 시즌2' 1회차 강연을 진행했다.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전북지식살롱 시즌2' 1회차 성료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전북지식살롱 시즌2' 1회차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차는 엘레먼트 컴퍼니의 최장순 대표(이하 대표)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일상의 빈칸'이라는 주제로 약 80여 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최 대표는 이번 강연에서 일상을 유심히 바라보는 기획자의 기본 습관, 일상에서 기획한 사례와 브랜드, 국내외 우수 기업들과 진행했던 프로젝트 경험을 공유했다.

순천에서 온 한 참가자는 "강연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공유받으며 기업과 고객이 만나는

접점이 어떻게 브랜드로 융합되고, 구조화되는 지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다"며 "배움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는 시간이었다"고 만족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어렵게 느껴졌던 기획이라는 작업을 쉽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었다"며 "1:1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명쾌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식살롱 시즌2' 2회차는 5월 29일 도시기획사(췌지방)의 조관능 대표가 로컬 콘텐츠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063-230-4216)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 '새 봄, 새 희망 콘서트' 25일 다양한 장르 무대 펼쳐진다

진안군은 오는 25일 오후 6시 30분, 진안군청 광장에서 '새 봄, 새 희망 콘서트'를 개최한다. 봄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이번 공연은 아름다운 세상, 봄여름 가을 겨울 등 보컬곡과 가곡, 합창, 하모니카 연주, 대중가요, 음악극, 국악,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곡으로 구성됐다.

특히 그룹 믹스커피 보컬 이소현, 소프라노 김나라, 소프라노 허은영과 전국 노래자랑 진안군편 최우수상에 빛나는 보컬 강유진, 진안 어린이합창단, 진안군립합창단 등 진안군의 실

력 있는 예술가가 참여하며, 보컬 김정일, 이한결의 하모니카 연주와 서편제의 주인공인 국악인 오정해의 무대가 더해져 더욱 풍성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정상식 문화체육과장은 "이번 공연은 남녀노소 모든 연령층이 좋아할 수 있는 공연으로, 많은 군민께서 오셔서 훌륭한 공연과 함께 봄을 만끽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공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